



20세 이하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26일(한국시간) 독일 드레스덴에서 치러진 U-20 여자월드컵 8강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3-1 승리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현영·지소연 골.. 골.. 골

U-20 여자월드컵... 멕시코 3대1 꺾고 29일 독일과 결승행 대결

최인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2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독일 드레스덴 루돌프-하르빅 경기장에서 열린 2010 FIFA U-20 여자월드컵 멕시코와 8강 경기에서 3-1로 이겨 4강에 진출했다.

U-20 여자월드컵 4강 일정			
	대한민국	vs	독일
(29일 밤 10:30)			
	콜롬비아	vs	나이지리아
(30일 새벽 01:30)			

조별리그에서 2승1패, D조 2위로 8강에 오른 한국은 지소연과 정혜인(현대제철)을 4-4-2 포메이션의 최전방 투톱에 세우고 좌·우 날개에 김진영과 이현영(이상 여주대), 중앙 미드필더에 김나래(여주대)와 이민아(영진전문대)를 배치해 C조 1위 멕시코(1승2무)에 맞섰다.

오른발로 한 번 점어놓고 왼발로 감아 차 멕시코 골대 구석에 꽂았다. 이현영은 스위스와의 조별리그 1차전(4-0 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두 번째 골 맛을 봤다.

포백 수비진은 좌·우 풀백 정영아(울산과학대)와 서현숙(한양여대), 중앙수비수는 주장 김혜리(여주대)와 임선주(한양여대)로 꾸렸고, 골문 앞에는 문소리(울산과학대)가 섰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전반 28분 지소연의 그림 같은 프리킥으로 추가골을 뽑아 한 골 더 달아났다. 아크 정면에서 정혜인이 반칙을 당해 얻은 프리킥을 지소연이 오른발로 가볍게 감아쳤는데, 수비벽을 넘어 멕시코 골대 오른쪽 구석으로 그대로 빨려들었다.

“태극양자”들은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어가려 했지만 전반 14분 만에 균형을 무너뜨렸다. 지소연이 미드필더 중앙에서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공을 내주자 이현영이

추진했다. 최 감독은 후반 11분 이민아를 빼고 활동량이 많은 권은솜을 투입해 중원을 강화했다.

“나이지리아 평가전 해외파 총출동”

조광래 축구대표팀 감독 밝혀

“가능하면 해외파는 모두 부르겠다.” 조광래(56) 축구대표팀 감독이 사령탑 데뷔전이 될 나이지리아와 평가전(8월11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 해외파 스타들은 물론 대표팀 경험이 없는 3~4명의 새 얼굴을 호출하기로 했다.

은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선수들은 그동안 많이 봐왔다”며 “그동안 대표팀 경험이 없는 유망주 3~4명에게 기회를 줘서 평가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 감독은 26일 “소속팀들의 사정에 따라 모두 합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이지리아 평가전에는 해외파를 전원 소집하기로 했다”며 “특히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젊

은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을 맡고 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수들이 힘들어하겠지만 관을 위해서라면 A매치에 참가해 국민과 축구를 즐기는 게 좋은 것 같다”며 나이지리아 평가전에 해외파 선수를 부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최경주 유럽투어 13위 그쳐

최경주(40)가 유럽프로골프투어 스칸디나비아 마스터스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다.

최경주는 26일(한국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브로호프 슬롯 골프장(파72·7365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퀘드러플 보기와 더블 보기 등을 쏟아내며 6오버파 78타의 초라한 성적표를 적어냈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로 나서며 두번째 유럽프로골프투어 우승을 기대했던 최경주는 함께 4인더파 284타로 13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파이널 퀸’ 마지막에 웃었다

‘강심장’ 신지애 18번홀 2m 버디 퍼팅 성공

모건 프레셀 따돌리고 마침내 알프스 정복



‘파이널 라운드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경기였다.

신지애는 25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르랭의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장(파72·6345야드)에서 열린 에비앙 마스터스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쓸어 담으며 함께 14언더파 274타로 우승했다.

프레셀이 2타 뒤진 공동 2위로 출발한 신지애는 4번홀(파4)에서 버디를 낚아 1타차로 좁혔지만 프레셀은 5번홀(파4)에서 두번째 샷을 그대로 홀에 집어넣는 이글을 만들어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신지애는 이 홀에서 버디로 응수하며 2타차를 유지했고 정확한 아이언 샷으로 거의 매홀 버디 기회를 만들어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프레셀이 10번홀(파4) 파퍼트를 놓치는 틈을 이용해 1타차로 좁힌 신지애는 13번홀(파4)에서 3m짜리 버디 퍼트를 집어넣으며 동타를 만들었다.

하지만 쉽게 뒤집어질 것 같았던 순위는 17번홀(파3)까지 바뀌지 않았고 이 홀에서 신지애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신지애의 티샷이 짧아 그린 가장자리에 떨어졌고 첫번째 퍼트도 홀을 지나쳤다. 프레셀은 티샷을 홀 2m에 붙였지만 버디를 잡아내지 못했다.

쉽지 않은 파퍼트를 성공하며 17번홀을 파로 막아낸 뒤 18번홀에 올라선 신지애는 그린을 향해 날린 세번째 샷이 너무 커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백스핀을 먹은 볼은 그린의 내리막을 타고 굴러내려와 2m 남짓한 곳에 멈춰섰고 신지애는 놓치지 않고 버디로 연결시켰다.

프레셀도 버디 기회를 맞았지만 희심의 퍼트가

홀을 빚겨 나가면서 우승컵은 신지애의 차지가 됐다.

우승 세리머니로 헬기에서 내려온 스카이다이빙가 가져온 태극기를 품에 안는 감격을 누리 신지애는 “여러 번 한국선수들이 우승에 근접했는데, 내가 첫 타이틀을 끊었다. 앞으로 한국선수들의 이 대회 우승이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팬장 수술을 받은 뒤 자신의 컨디션에 대해 신지애는 “수술받고 2주 동안 쉬었는데 그게 오히려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좋은 시간이었다. 휴식을 취해서 체력적으로는 시즌초 보다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최나연도 14번홀(파3)부터 17번홀까지 4개 홀 연속 버디를 낚는 등 6언더파 66타를 몰아쳐 먼저 함께 13언더파 275타를 적어낸 뒤 연장전을 기다렸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다. 특히 18번홀에서 버디 이상을 잡아야 했던 최나연은 그린을 직접 노렸던 두번째 샷이 그린 밖 러프에 떨어졌고 멋진 로브샷으로 볼을 그린 위에 올렸지만 버디 퍼트가 홀을 외면했다.

15세 소녀 알렉시스 톰슨(미국)도 13언더파 275타로 공동 2위에 오르는 선전을 펼쳤다.

김승희(22·하이트)는 공동 6위(10언더파 278타), 장정(30·기업은행)이 8위(9언더파 279타)에 오르는 등 한국 선수 4명이 톱10에 입성했다. /연합뉴스



우전해수욕장 매일 문행

슬로시리 증도

엔터테인먼트 | 남해관광 | 055-275-3944 | 055-275-2263

시틀어스 매일문행 (최신형 관광버스)

당일서클 : 15,000원(주말) / 18,000원(주말) | 18,000원(주말) | 25,000원

시틀어스-해운대도 해운사거리	요금
시틀어스-수원동(일명반대)	20,000원
시틀어스-스금동(일명반대)-해운사거리	25,000원